

신재생에너지 기업 ‘탄소국가산단 투자 유치’

전주시-태성이앤씨,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유)태성이앤씨(대표 이동주)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 협약은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장과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과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

표 등이 참여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투자 기업인 (유)태성이앤씨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특히 스마트 창호 시스템과 태양광 기반 자동 개폐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유)태성이앤씨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탄소국가산단내 태양광 창호 개폐기 공장을 신설하는 등 생산설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를 추

진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총 100억 원으로, 공장 이 완공되면 1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소재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탄소국가산단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올해 6월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투자기업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표는 “물류비 절감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가진 전주 탄소국가산단의 매력적인 입지 조건으로 전주 내 공장 확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업 한 곳 한 곳이 전주의 미래”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예산업 발전 방향 모색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역 공예인들과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공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단체 대표와 공예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지역 공예 거점 공간과 올해 추진 중인 다양한 수공예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공예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전주공예품전시관과 한국

전통문화전당 공방 등 공예 거점 공간 및 전주문화재단과 협력해 추진 중인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공예품 판매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시는 공예인 및 유관기관과 함께 공예 지원사업 수요와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홍보·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등 공예인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업 지원 분야를 면밀하게 파악해 공예 관련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가입자 만기 해지

전주시는 근로·자립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2022년도 가입자 939명 중 512명이 10월 중에 만기 해지를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이어온 결과 최소 360만 원에 시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 수령하게 됐다. 이는 본인 적립금(월 10만~50만 원)과 별도로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한 금액이다. 단 만기 시점이 도래한 가입자는 만기일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의료부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성실히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216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김현욱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근로와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내년까지 LED 전자게시대 운영·신청

전주시는 지역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 및 합법적인 광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LED 전자게시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완산구 통일광장사거리와 덕진구 화개네거리에 각각 17기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후 그동안 공공광고 위주로 시범 운영해 왔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광고뿐만 아니라, 전주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상업을 광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이 확대된다. 특히 전주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효과적인 LED 전자게시대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광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리 시스템과 전용 누리집을 구축했다. 전자게시대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분야별 정보 내 LED 전자게시대 메뉴를 통해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원하는 광고를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 맛·멋·흥’ 한자리에

‘전주막걸리축제’ 공연·전통주 체험 등 다채롭게 열려

‘전주페스타 2025’의 대미를 장식하며 전주의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2025 전주막걸리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전주비전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5 전주막걸리축제’에 연인원 2만여 명이 찾아 전통주와 전

주의 음식 문화를 한자리에 즐기며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에는 완주와 전주 지역 대표 막걸리 업소 8곳과 소상공인 음식점 21곳이 참여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삼천동 막걸리 골목 등 지역 대표 브랜드가 참여해 전주 막걸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렸다.

또한 올해 막걸리축제에서는 △술지 게임·누룩 전시 △모주 거르기 체험 등 전주전통술박물관과 연계한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주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축제에서는 개막식 기점봉이를 시작으로 가수 김현정과 류정국악밴드 차오름, DJ 페기굿 등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막걸리헌터스 게임과 막걸리팝(막걸리병 볼링·병뚜껑 컬링), 과일막걸리 캠페일 등 참여형 콘텐츠도 펼쳐졌다.

이외에도 올해 축제 현장에서는 ‘전주페스타 2025’와 연계한 스탬프투어와 즉석사진관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돼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축제는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담은 축제로 꾸며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안조성과 음식업계의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전주막걸리 축제를 국내 대표 음식·주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디지털 인재 양성 역량 ‘재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전주시 ‘링크’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공모전서 ‘우수상’ 수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년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디지털신기술 아이디어 및 SW개발 공모전’에서 전주시 ‘링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세종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BC),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SW 개발 성과를 겨루는 전국 단위 경연이다. 본선 대회에는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동북권 △동남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펼쳐진 지역 예선의 수상팀 21개 팀(전주 2개 팀 포함)이 진출해 아이디어 부문과 SW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공모전 첫날에는 각 팀의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튿날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특별강연과 시상식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AI, BC, Data, Network,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우수상을 받은 전주시 ‘링크’는 앞서 전주에서 진행된 ‘2025 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년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디지털신기술 아이디어 및 SW개발 공모전’에서 전주시 ‘링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ICT이노베이션스퀘어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이번 전국 대회에 출전했으며, ‘대화 데이터 기반 비표준어 구어체 합성 맞춤형 회화 학습 콘텐츠 생산’을 주제로 아이디어 부문에 참가해 실현 가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전국 공모전을 통해 전북지역 디지털 기술 인재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린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